

추진기관 점검 과정 이상 발견...늦어도 31일까지 재발사

나로호 발사 연기 원인과 전망

“밸브 운영 시스템 중단될 우려”
2차 발사도 역시 늦었지만 성공
기립 상태 일주일 유지 문제 없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연기됐다. 누리호는 발사 예정시간인 24일 오후 6시 24분을 3시간여 앞둔 오후 3시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발사가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문제 원인을 파악해 이르면 25일, 같은 시각인 오후 6시24분에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오대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4일 오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며 누리호 3차 발사 무산 사실을 밝혔다.

오차관은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 수동 작동되지만, 밸브 운용 시스템 자체가 자동 운용 모드에 가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발사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항우연은 이날 오후 12시 24분 발사 운용 절차를 시작, 발사체 추진 기관 구성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후 3시에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을 발견했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발사체 내부 하드웨어 이상이 아니라 지상 장비의 통신 쪽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생한 문제는 여러 차례 리허설에서는 발

생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언제 발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과기부와 항우연은 누리호를 최대한 기립 상태로 둔 채, 이상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르면 25일 오후 다시 누리호 발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만약 25일 발사하게 된다면 발사 시각은 이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24분이 될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오차관은 “내일 발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시스템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여부에 따라 달라 있다”며 “문제가 25일 오전 중 해결된다면 제반 사항을 고려해 25일 발사 가능 여부를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와 항우연은 애초 발사 예정일인 24일 발사가 무산되면 예비일인 25-31일 중 발사일을 다시 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항우연은 누리호가 기립 상태를 일주일 정도 유지해도 문제가 없으며, 이미 탑재한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비롯한 위성 8기 모두 예비일 기간에 탑재 상태로 있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이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날씨와 시스템 문제로 당초 발사일보다 몇 세 늦게 2차 발사가 이뤄졌다. 당시 누리호는 역시 늦게 우주로 향했지만 성능검증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며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르면 25일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발사체를 통해 실용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림으로써 상업적 우주 개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실전 발사’로 불리는 이유다. 2차 발사 때에도 실제 위성이 탑재되었지만, 당시 주탑재위성은 ‘성능검증위성’으로 위성 자체 임무보다는 발사체(누리호)의 투입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였다.



24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3차 발사가 기술적인 결함을 이유로 취소된 가운데 발사 모습을 보러 고흥 우주발사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고흥=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차 발사에 탑재되는 위성들에는 실용위성이 포함돼 실제 지상 관측이나 우주 방사능 관측 등 위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누리호 2차 발사 때와 크게 다르다.

당시 위성들은 자체 임무보다 누리호의 위성발사 능력 자체를 검증하는데 초점이 있었기에 ‘진짜 위성 손님을 태우고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시위 원천봉쇄

신고 단계서 불허 방안 검토
이재명 “명백한 위헌적 발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간 문화제를 방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동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dB(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역에 의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 보가 백작간두(百尺竿頭)”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힘차게 날아 오를길 기대했는데...그래도 반드시 성공할 것”

아쉬움 남긴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서울·인천 등서 온가족 함께 방문
아침부터 돛자리 깔고 자리 차지도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돼서 아쉽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누리호 키즈’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두 아이와 함께 인천에서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우주발사전망대를 방문한 정미정(여·40)씨는 누리호 발사 연기 소식을 접하고 아쉬움에도 우주 강국에 대한 소망을 희망했다.

정씨는 “내일 다시 발사할 수도 있는 만큼 근처에 숙소를 잡아다시 전망대를 찾을 예정이다”며 “아이들의 꿈을 싣고 누리호가 힘차게 우주로 날아올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됐던 24일, 고흥군 영남면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

원하며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이 몰렸다.

이들은 발사 수시간 전부터 모여 돛자리를 펴고, 바다를 보며 우주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아이들은 모자에 태극기를 꽂고 로켓처럼 하늘로 날아 오르는 시늉을 하며 전망대 곳곳을 돌아다녔다.

서울, 인천 등 멀리서 차를 타고 와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4시께 누리호 발사가 공식적으로 연기되자,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렸다.

시민들은 전망대 앞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정부 발표를 보며 하나같이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해 성공하는 것이 낫다’며 누리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두 아이와 함께 고흥에 도착한 장승진(45)씨는 누구보다 아쉬워 했다.

6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온 장씨는 “아들과 딸에게 자랑스러운 한국 과학기술의 성과와, 우주선이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며 “취소돼 아쉽지만, 위험한 상태로 누리호

를 쏘는 것보다 확실히 점검해 안전하게 발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사를 접고 아이에게 누리호 발사를 보여주기 위해 고흥까지 달려온 가족도 있었다. 대전 신탄진에서 온 김기덕(41)씨는 아들 병훈(4)군을 데리고 고흥 전망대를 찾았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발사대를 찾은 연인도 있었다.

경기도 화성에서 새벽에 출발해 오전 9시에 도착한 심예진(여·23)씨는 영국에서 온 남자친구 루크(Luke·21)씨와 함께 전망대를 찾았다.

이들은 누리호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돛자리를 깔고 직접 누리호 발사를 보기 위해 하루종일 기다렸다고 한다.

심씨는 “발사가 연기돼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고흥 전망대를 구경하고 바닷가를 봐 기분이 좋다. 다음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응원했다.

/고흥=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